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第19回 發明教室 盛了
9月 14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9月 14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19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은…○
- …아마추어 發明인들이 參席하여 發明인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質議應答을…○
- …통하여 아이디어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이번…○
- …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世一商…○
- …事 金善均 社長과, (株) 金星社 오디오設計室 李錫雨 기좌의 成功事例 發表에…○
-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的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八旬앞둔 老神士 發明人 世一商社 代表 金善均 翁



『個人發明人은 生活 주변에서 素材를 찾아야 成功할 수 있습니다.』

八旬을 앞둔 白髮 老神士 發明人 金善均翁(75)의 發明哲學이다. 金翁은 25年前부터 發明에 沒頭, 60여가지를 考案하여 그중에서 5가지가 特許廳에 登錄되었으

〈金善均翁〉 나 그중 「電子 낚싯대」만이 成功할 수 있었다며 『個人發明人은 理想보다는 現實위주로 發明에 입해야 허다』고 거듭 語했다.

오랜 歲月 동안 敎育界에서 일해온 金翁이 發明에

沒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0年. 25년이 넘도록 가슴에 안고 다닌 金翁의 때문은 수첩에는 60여가지의 考案이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숨쉬고 있다.

길을 가다가도, 만월 버스속에서도, 식사중에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부터 해왔다는 金翁은 「아이디어는 떠오르는 즉시 메모하지 않으면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金翁이 電子낚싯대 發明을 計劃한 것은 지난 82年. 낚시를 하다보니 찌를 달아놓고 조용할 때는 좋은데 눈에 쉽게 피로가 오고 어지러운 느낌까지 들뿐만 아니라 부담없는 휴식은 물론 독서 및 오락등도 즐길 수가 없어 電子낚싯대를 發明하기로 했다는 것.

金翁이 2年여에 걸쳐 發明한 電子낚싯대는 찌나 방울등이 必要없고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 감지기에 의해 自動으로 손잡이에 있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부저의 신호가 울리도록 考案됐다.

또한 이 낚싯대는 손잡이에 照明램프와 이어폰이 부

착되어 있어 밤낚시중 바늘에 미끼를 끼울때 풀래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어폰의 길이가 3m로 낚시로부터 3m가 떨어진 곳에서 휴식을 즐기면서도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

金웅이 이 電子낚시대 發明중 이를 實驗한 곳은 인천 작약도. 이 때문에 이 發明을 위해 하루에 3번이나 서울과 인천을 오가기도 했다.

『韓國發明特許協會와 特許廳에 감사드립니다.』

特許가 나왔으나 資金이 없어 苦心하던 중 신문에서 本會의 試作品 製作費 支援 內容을 보고 申請하여 製品化할 수 있었고 資金主까지 나서 世一商社까지 誕生하게 되었다는 金웅의 說明.

또 日本에도 特許를 出願하여 公開를 앞두고 있으며 美國·日本·호주·캐나다등에서는 바이어까지 다녀가 來年초면 輸出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金웅의 所願은 이미 特許기간은 만료되었지만 自身の 發明인 「무리가 있는 알루미늄 샷시」가 製品化되는 것을 보는 것.

金웅은 이것을 製品化하겠다는 企業이 나서면 모든 資料와 技術을 提供하겠다고 約束했다.

金星처럼 빛나는 金星社 發明王 (株) 金星社 오디오 設計室 기좌 李錫雨씨



『秘訣요? 없어요. 事物을 대할 때 좀 問題의식을 갖고 대한다는 것 외엔 별다른게 없어요.』

아직도 大多數의 사람들에게 平生을 두고 낯설기만 한 發明이란 높은 山을 李錫雨씨(31)는 어떻게 한달에 두번 가까이 척척 넘을 수가 있었을까.

〈李錫雨씨〉 金星처럼 빛나는 빛을 발하는 金星社의 젊은 發明王. 問題의식을 갖고 事物을 대하기 때문에 李씨의 머리속엔 늘 새로운 「아이디어」란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中學校 때 우연히 라디오의 金星마크를 보고 「나도 이런 會社에서 일했으면」하던 막연한 바램이 실현되었

다는 李씨.

75年 3月 高等學校 졸업과 동시 入社, 金星社 釜山工場 設計室의 스테레오 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오디오 設計室에 몸담기까지 줄곧 設計室을 떠나 본적이 없는 李씨의 이력서 경력란은 단 한줄이면 족하다. 이 때문인지 틈틈히 공부하여 지난해 늘어난 모 대학 「전자공학과 졸업」이라는 학력란의 한줄이 유난히 돋보인다.

李씨가 入社후 최초로 單獨 開發한 모델은 GSD-2300시리즈. 모두 15種種을 出產해낸 모델로서 당시 많은 輸出실적을 기록해 처녀작치곤 크게 成功한 편이었다.

그뒤 李씨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발휘된 모델은 GSM-4750. 아직까지도 오디오 設計室內에서는 이 모델의 輸出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을 만큼 最高의 輸出실적을 올린 멋진 作品이었다.

李씨는 또 지난 79年 IS-4040 모델로 審査과정에서 까다롭기로 이름난 美國의 Consumer Report誌 킨메스트에서 日本의 SANYO를 제치고 最優秀賞을 차지함으로써 「GS의 돌비專門家」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다.

李씨는 올 년초에 84年度 社內 事業部 「發明王」으로 選定되어 영예의 王冠을 썼다. 이번 部內發明王은 3年 연속 受賞이며 지난해에는 社內 發明王까지 휩쓸어 「金星社의 金星」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

李씨의 發明品은 모두 64點. 登錄 8件·公告중 6件·出願중 34件·出願申請중 16件등이다.

李씨를 社內 發明王으로 부상시킨 83年엔 24件을 發明, 月평균 2件 發明이라는 기염을 과시하기도 했다.

金星社의 金星 李씨. 自身の 發明品 중 「음성합성효과를 이용한 자동판매기의 음악송출장치」를 가장 아끼는 李씨에게 發明王 3年覇의 욕심을 묻자 「열심히 하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저절로 도달해 있는게 아니냐」고 오히려 反問한다.

『날로 치열해져가고 있는 電子戰爭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先進國에 필적할만한 自體 特許開發이 시급하지요.』

李씨는 金星社의 發明王에 만족하지 않고 世界의 發明王이 되겠다며 하늘같은 꿈을 펼쳤다. 〈W〉